



관내 동향

□ 송도근 사천시장, "항공MRO 이원화 절대 반대"

- 8월 26일 KBS창원에서 'MRO사업 이원화 갈등, 사천 항공사업 어디로?'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송도근 사천시장, 경상국립대 항공우주 및 SW공학부 권진회 교수, 국토교통부 첨단항공 김동익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항공MRO사업의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함
- 송도근 사천시장은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와 군수분야,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 유치라는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방안은 항공MRO 사업을 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
- 또한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어가고 있다며, 사천과 인천으로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 전문 업체인 캄스가 있는 사천에 전폭적인 지원 요청
- 권진회 교수는 해외 전문기업을 유치해서 항공MRO 사업을 하게 되면 KA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측면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, 돈은 인천도 사천도 아닌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은 물론 항공MRO 첨단기술을 해외에 종식시킬 가능성 우려

□ 사천시,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나선다.

- 사천시가 8월 23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관내 항공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
-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침체된 사천시 항공부품업체에게 새로운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, 올해부터 3년간 3억 원씩 총 9억 예산을 투입

- 시는 마케팅 경쟁력 제고와 고객 네트워크 강화 지원, 고객발굴과 매칭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 및 해외 항공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될 것으로 기대

□ 한국항공우주산업, 우주서비스 시장 진출

- 9월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은 국내 항공 영상 분석 전문업체 '메이사'의 지분 20%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
- 메이사는 2D로 촬영된 영상을 3D로 전환하는 '3D 리컨스트럭션 엔진'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소기업으로, 국내 이미지 분석 기술을 선도
-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은 현재 드론 영상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 분야의 실시간 공정률 측정, 시공 도면과의 오차 분석 등에 활용
-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이 위성에 적용되면 항구의 선박 이동량에 따른 물동량, 산림자원 및 병충해 정보, 곡물 작황, 유류 저장량 분석 등 다양한 산업으로 서비스 분야 확대
- KAI는 위성 영상 서비스를 4차 산업 기술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하여, 우주 서비스 분야가 2040년 30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



도내 동향

□ 서부경남 항공제조기업 합동지원 설명회에 관심 집중

-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8월 31일과 9월 1일,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'서부경남 항공제조기업 대상 유관기관 합동 기업지원 설명회' 개최
- 이번 설명회에는 진주시, 사천시,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서부지부,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서부지사 등 9개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아스트, (주)울곡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임

-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부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제조업의 고용·교육·용자·채용·R&D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
-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앞으로도 기관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해 항공제조업의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임



국내 동향

□ 아시아나항공 환승객 유치 전략으로 1만 명 탑승 성과

-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국발 미주행 인천 환승 노선(중국→한국→미국)에서 약 1만여 명의 수요를 유치,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환승 실적을 달성
- 중국 노선이 대폭 축소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▲미주행 연결 항공편 증편 ▲항공기 스케줄 탄력 운용 ▲환승 프로세스 개선 ▲타항공사들과의 협업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환승 수요 유치를 확대
- 아시아나항공은 미주행 환승 수요에 이어 유럽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 중인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, 앞으로 중국발 호주행, 동남아발 미주행 등 다양한 경로의 환승 수요를 유치할 계획

□ 항공업계, 부활을 위한 '위드 코로나' 마케팅 총력전

- 정부와 정치권에서 10월 이후 '위드 코로나'로 방역체계 개편 신호를 보내자, 항공업계는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 치열
- 항공사들은 특히 MZ세대(1980년대 초 ~ 2000년대 초반 출생)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

- 9월 11일 김포-제주 노선에서 첫 비행을 시작한 신생 항공사 **에어프레미아**는 '가심비(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)' 소비를 지향하는 **MZ세대**를 공략하기 위해 △넓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제공, △합리적인 가격, △반려동물을 위한 완화된 10kg(운송용기 포함) 동반 탑승 허용
- 일본 국적항공사인 ANA그룹은 내년부터 가상현실(VR) 여행 플랫폼 '**스카이 웨일**'을 선보여, 세계적 여행 도시와 명소를 3차원으로 구현해 MZ세대를 공략할 예정
-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가까이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를 선점하려는 항공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



해외 동향

□ **아마존, 항공물류 경쟁자 등극! 미국서 하루 164회 비행**

-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, 세계 최대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**아마존**이 미국 내 하루 평균 화물기를 **164회 운항**
- 아마존은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뿐 만 아니라 제3자 항공화물도 담당하는 항공물류 업체로 거듭나는 중
- 아마존에어가 정기적으로 화물기를 취항하는 미국 내 공항은 42곳으로, 7만 4000m² 면적의 물류센터에 약 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하루 200편 화물기 운항이 가능
- 아마존에어 화물기는 73대로 468대인 페덱스, 283대인 UPS 등에 못 미치나 빠르게 성장 중이라 항공물류 부문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 전망

□ 인도 보잉 737맥스 운항재개 허용, 중국만 남았다

- 인도가 잇따른 사고로 운항을 정지시켰던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월 26일(현지시간) 전함
- 보잉 737맥스는 잇단 사고로 운항이 정지됐다가 보완작업을 거쳐 2020년 11월 이후 미국, 유럽연합(EU) 등 전 세계 175개국에서 운항 재개 승인을 받음
- 인도 민간항공청(DGCA)은 세계 각국의 보잉 737 맥스 운항 정지 해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본 뒤 34개 항공사들에 문제없음을 확인 후 2년 6개월 만에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
-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전 세계 주요 항공시장 가운데 중국만이 아직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



- 폭 : 35.92m ○ 길이 : 39.52m
- 높이 : 12.3m
- 순항속도 : 839km/h
- 최대 운항거리 : 6,570km
- 중단거리 노선용
- 2017년 상업비행을 시작
- 맥스7에서 맥스10까지 공개

보잉737 MAX 8

작성일	2021. 9. 13.(월)	보고일	2021. 9. 15.(수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